

투데이

결함많은 KTX 객차 호남선 배치 물의

리콜대상 'KTX산천' 호남선 15대 경부선 6대

코레일 "승객 많은 경부선에 KTX1 우선 배치"

코레일(한국철도공사·KORAIL)이 치명적 결함으로 사설상 리콜이 결정된 'KTX-산천' 열차를 호남행 노선에 집중 투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코레일 인터넷 승차권 앱 홈페이지에 따르면 코레일이 이날 하루 동안 호남행 노선에 투입한 KTX-산천 열차(이하 하행선 기준)가 영남행 노선에 투입된 것보다 2.5배나 많았다.

이 때문에 호남선을 이용하는 회사원과 여행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용산역에서 출발해 목포, 광주로 가는 호남행 노선에 총

15대의 KTX-산천을 투입했다. 용산~목포간 노선에 오후 13시 30분에 출발해 오후 16시 41분에 도착하는 409번 열차를 비롯해 411번·413번·417번·401번·4105번 등 총 6대를 배치했고, 용산~광주행에 나머지 9대가 집중 투입됐다.

이에 비해 이날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 마산으로 가는 영남행 노선에 투입된 KTX-산천은 6대에 불과했다. 서울~부산 노선엔 001번·357번 열차 등 2대의 KTX-산천이, 서울~마산 노선엔 381번·382번·387번·393번 열차 등 4대의 KTX-산천이 운행했다.

출장 때문에 월 2회 이상 호남선을 이용한다는 김모(39)씨는 "KTX를

코레일은 종전에는 영남행 노선에 평일 12대(주말 22대)를, 호남행 노선엔 평일 20대(주말 30대)의 KTX-산천을 각각 투입했었다. 하지만 2월 이후 영남행 노선 투입 대수는 절반으로 줄고, 상대적으로 호남행은 투입 대수가 4분의 1만 줄어들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KTX-산천의 호남행의 상대적 집중 투입에 대해 코레일 안팎에서는 최근의 KTX-산천 고장 사고가 일어난 노선이 대부분 영남행 노선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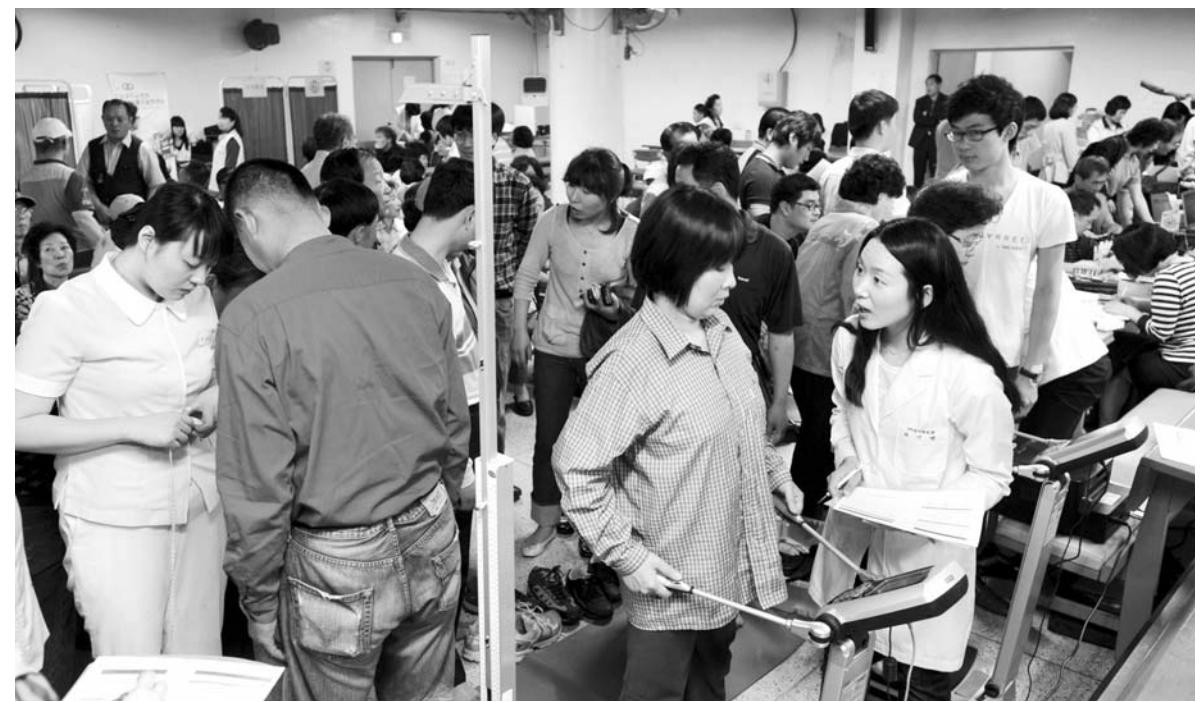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탈 때마다 대부분 산천이어서 항상 찜찜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KTX-산천의 승객 수용 능력이 적고, 노선별 좌석 수요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코레일 홍보팀 관계자는 "KTX-1의 승객 수용 능력이 935명으로 KTX-산천(360명)보다 훨씬 많다"며 "승객이 많은 경부선에 좌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KTX-1을 집중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은 호남선 쪽에 좌석 공급량이 적은 KTX-산천을 배치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KTX-산천=④현대로템이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개발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 열차이다. 국산화율 87%로 사실상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다. 이름은 토종 어종인 산천이에서 따왔다.



12일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내 건강 수준 알기의 날' 캠페인에 참석한 주민들이 일반 혈액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 방사선 수치 한때 급상승 논란

영광원전 "기기오류...비온후 일시적 현상일 뿐"

환경단체 "타 기기서도 최고치...원인 분석해야"

광주·전남 지역 방사선 수치가 한 때 평소보다 4~5배, 서울보다 30배 이상 높게 나타나 환경단체가 원인 분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기고장에 의한 오류로, 비가 올 때 일시적으로 방사선량들이 높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일정 부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국가환경 방사선 자동감시망 자료에도 이날 광주·전남 방사선량들이 높게 나타나 일시적 오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영광의 평소 수준인 0.012~0.016mR/h보다 4~5배, 서울보다 30배 이상 높은 수치다.

11일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실시간 환경방사선량을 자료에는 영광 16mSv/h(시간당 나노시버트·오

전 10시), 무안 190nSv/h(오후 1시), 광주 165nSv/h(오후 2시) 등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평소보다 30~70nSv/h 높은 수치다.

반면 이날 광주·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수치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방사선량 수치가 오전 6시께 상승하다가 오후 2시께 최고치를 보이고 차츰 줄어들었고, 경남 남해안 측 정소는 오전 11시를 전후해 상승해 오후 6시께 최고치를 기록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영광원전과 원자력안전 기술원 등은 광주·전남만 수치변화가 큰 원인 등에 대해 명확히 분석해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 최장 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고 1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신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문협회는 페스포트를 제시하는 활동과제를 수행할 학생을 13일부터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겠다.

전남도, 과수 냉해피해 정밀조사

전남도는 지난 겨울 한파 등으로 인해 과수나무가 고사하거나 꽃눈 형성과 착과가 되지 않는 과수의 냉해 피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수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냉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발전연구원장에
박승주 前여성부차관

제3대 광주발전 연구원장에 박승주(59) 전 여성부 차관이 임명됐다.



광주발전연구원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박 차관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 차관은 신임으로 매실과 유자, 비파, 무화과, 단감, 배 등에서 과수 꽃과 씨방이 겸게 변색하거나 착과가 불량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해 이뤄졌다.

냉해를 입은 모든 과수가 대상이며 피해 농가는 해당 시군이나 읍면사무소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재난발생 때 16가지 행동요령을 찾아라"

신문協, 초·중·고생에 '재난과 나눔 패스포트' 배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전국 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래)와 함께 '재난과 나눔 패스포트'를 전국 초·중·고생 1만 명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난과 나눔 패스포트'는 일반 여권 크기의 NIE(신문활용교육) 워크북의 일종으로, 학생들의 재

집하며, 신청 학생에게는 '희망 저금통'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패스포트에는 재난 관련 기사를 활용한 16개의 활동과제가 수록돼 있다. 학생들은 신문 지면이나 신문사 사이트에서 자연재해의 종류와 예방법, 자연재해별 행동요령, 재해 구호기관 등의 정보를 찾아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성~목포 철도공사 중단 5년만에 재개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철도 교통망인 보성~임성(목포)간 철도 건설 공사가 중단 5년만에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올해 설계변경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역과 보성역을 잇는 총 구간 79.5km의 철도건설(단선) 공사가 내년 상반기 재개된다. 총 사업비 1조 297억원에 7개 공구로 나눠

건설되며 오는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경남과 순천을 거쳐 보성으로 이어지는 경전선이 광주로 우회하지 않고도 목포와 곧장 연결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설계비 10억원을 들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설계기준 변경에 착수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전 2012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보

성~임성 철도건설은 목포~보성 간 거리와 시간단축으로 광양만관과 서부권간의 수송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2003년 장흥·장동·구간 1공구와 무안 임성리역 주변 7공구 등 2개 공구 공사가 시작됐으나 교통수요가 많지 않아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6년 공정을 2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부 출장파티 전문업체

출장뷔페·도시락·식판급식·성당 교회결혼식뷔페·야외결혼식뷔페 칠순/팔순잔치·체육대회·아유회 종친회·기업체 각종행사

파티외식산업

문의 본사 ☎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인사총무팀)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m²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식서비스 · 개별설정방법의 초기화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 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1.2%~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a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농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0명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근무조건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경운기 작동 가능자

근무장소 전